



“신뢰를 잃는니 돈을 잃는다!”

## 화재예방 선도기업, 한국로버트보쉬(주)

글 이미숙 KFFA 계몽홍보팀 과장



KFPA는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건물 입구에 부착하는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2011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된 한국로버트보쉬(주)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윤태수 이사(사진), 강석민 차장, 임재웅 과장을 만나 경영전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한국로버트보쉬(주)

한국로버트보쉬(주)는 1886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126주년이 된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독일 보쉬그룹의 한국 투자법인이다. 보쉬그룹에는 전 세계 30만3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 514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국로버트보쉬(주)는 1972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밖에도 (주)보쉬 전장, ETAS 코리아(주), 3개의 합작회사 등 총 10개의 사업장이 있다. 한국 내 보쉬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3,600 여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010년 매출은 2조 2,200억원에 달하며 전체 매출액의 85%가 자동차 부품 관련이다. 보쉬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 및 개발 분야에 34,200여명이나 속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300명 이상의 연구 개발 엔지니어를 보유, 연구 개발 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로버트보쉬(주) 대전공장

한국로버트보쉬(주) 대전공장은 대지면적 36,424㎡, 총연면적 25,025㎡에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신설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커먼레일 인젝터, 고압펌프, EDC/ECU, AFS와 같은 자동차 부품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전공장은 커먼레일 인젝터 생산량 대비 실패율이 2ppm으로(백만 개의 제품 가운데 단 두 개 이하의 불량률), 전 세계 공장들 가운데 가장 낮은 불량률과 가장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다. 대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에 납품, 전 세계로 수출되어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해외시장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한국로버트보쉬(주)의 자재창

### 경영철학이 담긴 안전경영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직원... 신뢰를 잃느니 돈을 잃겠다.”라는 창립자 로버트 보쉬의 철학은 회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안전분야에도 마찬가지이다. 보쉬는 직원을 ‘가치를 지닌 동반자’로 여기고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은 물론 국내기업에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투자도 서슴치 않고 실행한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03년, 공장 내 모든 방호구역에 개당 30만원 정도 하는 아날로그식 감지기를 720개나 설치하는 등 당시로서는 큰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여 관련 업계의 놀라움과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 글로벌 수준의 화재안전 선도기업

보쉬는 글로벌 기업답게 국내 소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 감사 등을 통해 국제기준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국내 소방법상 대전공장의 적정 수원수량은 120톤 정도이지만 보쉬는 무려 680톤이나 보유하고 소방펌프 및 물탱크를 전용건물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산라인 모든 구역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으며, 화재빈도에 따른 장비별 가스소화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화재취약지구와 장비별로 CO<sub>2</sub> 및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집중 배치하였다. 자재창고 기계차 충전 시 과충전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충전 Station을 별도로 마련하고 화재를 방호할 수 있는 SUS COVER 및 Fire-Pro 소화장치까지 설치하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그만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다.

매월 소방시설 점검전문업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최상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대피위주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공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윤태수 이사는 “독일의 기업문화가 우리나라와 달리 경영자의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회사철학에 의해 정비된 규정과 법규를 지키는 문화”라며, “안전분야에 있어서도 만약 다른 나라 보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전 세계 보쉬 공장이 공유하고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이 아니라 『화재안전 대상』이라도 만들어 주고 싶은 한국로버트보쉬(주) 대전공장…

시설관리와 방화관리를 맡고 있는 강석민 차장과 임재웅 과장은 “업무를 하다보면 국제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 소방법이 늦게 반영되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KFPA로부터 해외의 선진기술 및 정보,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된다”며 “향후에도 굵직한 소방관련 시설투자가 계획되어 있는데, KFPA와 함께 협의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간존중의 경영철학을 회사 내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는 보쉬그룹을 둘러보고 나니,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대형위험으로부터 회사와 직원을 보호하여 결국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한국로버트보쉬(주)가 관련 업계에서는 물론 안전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 굳건히 그 위치를 지켜나가기를 바라며 탐방을 마쳤다. ☺



한국로버트보쉬(주)의 화재안전교육

